

# 韓國塔內舍利容器에의

## 記銘變遷考

金 禧 庚

### 一、前 言

塔內에 聖스러운 舍利를 奉安함에 있어서는, 舍利容器에 精誠을 다하여 納入하게 되며, 때로는 銘文이 舍利容器에나 圓套銅板 또는 塔誌石에 記刻되는 일이 있어, 塔婆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에서 三國以來의 여러 塔內에서 發見된 記銘舍利容器의 例를 들어 그 變遷을 살펴보는 同時에, 二次大戰後 中國本土에서 塔址發掘例를 들 어, 우리와의 比較考察에도 若干 言及하려 한다.

### 二、韓國의 記銘舍利容器

古新羅·慶州芬皇寺 模塼石塔의 第二層內에서 修理時 石函이 發見되었으나 銘文은 없었다.

#### 統一新羅

(1) 慶州 皇福寺 三層石塔의 第二層 屋蓋石內의 金銅舍利函 蓋裏에 陰刻된 銘文은 一八行 三四四字로, 作故한 金氏王家一族의 冥福을 祈願하기 爲하여 建塔한 緣田가 새겨져 있으며, 記銘 金屬舍利函의 最古의 것

으로 統一初期 石塔樣式을 考察하는데 하나의 基準이 되고 있다. 神龍二年은 聖德王 五年, A·D·七〇六年.

(2) 神龍二年銘 金銅舍利函(在日三井家藏)은 方函 蓋裏에 八行 二四字가 墨書로 되어 있다(缺字도 있음), A·D·七〇六年.

八〇〇年代의 後半이 되면, 石函이 出現하니,

(3) 敏哀大王 石塔舍利石盒은 羅末王權爭奪의 渦中에서 二〇餘歲의 나이로 棄世한 閔哀王을 爲한 舍利石盒이다. 蠟石製로서 胴體의 外面을 돌아 細線으로 井間을 區劃하여 三八行 各行 七字 楷書體로 記刻되었 으며, 一九六字가 判讀되었고(缺字 二七), 此種의 石盒中에서 表面에 黑漆한 唯一例이다. 元來 蓋가 있었으나, 不法者에 依해 破壞되었 으며, 內部엔 銀製瓶內에 綠色 舍利瓶이 藏置되었다고도 하나 確實치 않다. 이 盒의 類似品으로는 奉化西洞里 東三層石塔의 盒이 있으나 無銘이다. 高는 八·三cm, 咸通四年은 景文王 三年, A·D·八六三年.

(4) 鶯樓寺 三層石塔舍利盒은 前記한 敏哀大王 舍利盒과 거의 同大이며, 周圍에 一六行 七四字, 底面에 一行 四字가 있으며, 石匠의 姓名이 있음은 稀例라 하겠다. 일찍기 日本에 건너가 있었으나, 韓日文化協定에 따라 返還되어 왔다.

(5) 皇龍寺木塔址 金銅舍利函은 新羅下代에 이르러 重刻時에 새로 마련된 것으로 同大의 金銅板 三枚(二二·五cm×二三·五cm)의 各面內外에 雙鉤體로 記刻되어 있으며, 前面은 二枚의 長方形 銅板을 兩扉로 하였는데, 각기 側板과 上下에서 別個의 金具로서 連結하였고(一一·〇八cm×二二·五cm), 表裏에 가늠히 神將立像을 線刻하였다. (完形의 底板이 없음(註一)). 內函의 銘文 또한 九〇〇餘字로 此種의 銘文中 最長이며, 史料로서 지니는 價値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咸通一三年은 景文王 一二年, A·D·八七二年. 以後 木塔舍利藏置의 準據가 되어 왔다.

(6) 仲和三年銘 金銅圓套는 皇龍寺木塔址에서 發見되었다고도 傳하며, 八行 一一九字가(缺字五) 雙鉤體로 陰刻되었다. 仲和三年은 憲康王 九年, A·D·八八三年.

(7) 松林寺塔塔 石龜形函은 外函이 後世 것으로 보여지는 바(註二) 方函이 아니고, 石龜인 稀例로 一九五九年 四月 解體修理時에 發見되었다. 內部에 舍利藏置는 있었으나 銘文은 없었다.

### 高麗

麗代에 들어서는 石製盒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며, 金屬容器 特히 銅盒이 많이 사용된다.

(1) 開寶·大平興國 石製舍利圓壺(서울金潤氏藏)。거칠게 깎은 石壺身 蓋가 具備된 綠釉小壺(高五cm)가 들어 있다. 開寶는 宋太祖 年號로 그 八年은 高麗 光宗 二六年, A·D·九七五年, 大平興國 八年은 宋太宗 年號인데 高麗 成宗 二年, A·D·九八三年.

(2) 瑞山普願寺址 五層石塔舍利匣(國博所藏)。一九六八年 六月 二日 塔修理時에 第五層에서 發見되었는데, 底面에 四行의 偈頌이 雙鉤體로 陰刻(字徑 一cm)되어 있다. 長 八·一cm, 幅六·九cm, 厚二·二cm, 羅末麗初。

(3) 至大三年銘 金銅舍利塔(朴鍾和氏藏)。舍利塔內 圓筒器의 外周를 돌아 縱書로 一行 二五字가 陰刻되었다. 이 樣式은 元代의 喇嘛塔樣式을 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麗末 金屬工藝技術 水準의 一面을 보여 주는 것으로, 金剛山 月出峰 出土品과 同軌에 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朝鮮初에 流行되는 石鍾形浮屠와 의 聯關性도 考慮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塔高 二四·五cm, 至大三年은 忠宣王 二年, A·D·一三一〇年.

(4) 至治三年銘 金銅八角形 舍利容器(在日 京都鄭詔文氏藏)。三葉이 缺하였으나 蕾形紐가 있는 八角盒으로 全面 魚子文바탕에 唐草文을 線刻하였다. 內部에 瑠璃製 舍利壺가 藏置되었을 것이나 逸失된 것 같다. 底裏에 「至治三年十月日德山施主造」의 一二字가 刻記되어 있다. 總高 六·五cm, 徑六·五cm, 高麗 忠肅王 一〇年 A·D·一三三三年.

(5) 普濟尊者兩塔銅盒。江原道 原城郡本部面 令傳寺址石塔(現在 景福宮庭 移建)內에서 發見되었다. 其一塔 A 銅盒(No. 二) 身蓋緣에 八字를 陰刻하고, 其二塔 銅盒은 七四字를 陰刻하였다. 明洪武 二二年은 高

麗 禑王 一四年, A·D·一三八八年.

(6) 李成桂發願 銀製鍍金舍利塔。金剛山月出峰의 石塔內에서 發見된 것으로 塔內의 圓筒周圍에 楷書로 三九字의 銘文이 있고 伴出된 白磁坑에는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이라 陰刻되어 있는데, 이는 李太祖의 即位 一年前이 된다. 恭讓王 三年, A·D·一三九一年.

(7) 高麗 銀製舍利小塔銘(美國 Boston 博物館藏)。覆鉢形 金塔舍利塔內에 奉安된 同大의 八角形 小塔 五基의 各面에 各一字씩, 底面에 各四字씩 陰刻되어 있는데, 各面의 字徑은 〇·五cm, 底面字徑은 約 一cm이다. 이 舍利具의 原所在塔은 京畿道 華藏寺 指空塔으로 推定되며, 日帝 時 掠奪되어 日商을 거쳐 渡美케 되었다고 하는 바, 小塔內에는 아직 舍利가 殘存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 近世朝鮮

(1) 成化六年銘 懸燈寺石塔 銀製圓筒(金東鉉氏藏)。銀製 圓筒 外周에 陰刻되어 있다. 七行 細字이고 筒內에는 水晶舍利瓶이 들어 있다. 圓筒 高는 六·五cm, 字徑 〇·五cm, 成化六年은 世祖 一五年으로 A·D·一四七〇年이다. 雪岳山懸燈寺에는 現在 寺庭에 李朝塔 一基와 高麗塔(一層屋身缺失)이 三層까지 언덕 아래에 殘存하고 있으나, 이에 對한 調査 報告는 다른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2) 正德五年銘 靑銅舍利盒。梵文外에 刻銘이 있고 안에는 水晶 舍利容器 二個가 들어 있다. 正德 五年은 中宗 五年 A·D·一五一〇年, 出土地는 未詳이고 高五·三cm(國博所藏).

(3) 正德六年銘 白磁舍利圓壺(金潤氏藏)。身蓋가 具備된 小圓壺이고, 蓋와 身周에 陰刻되어 있고, 高九cm, 字徑은 一·五cm, 正德六年은 朝鮮 中宗 六年, A·D·一五一二年.

(4) 寶林寺 東石塔內, 靑銅盒. 表面 下緣部에 點線으로 西塔 것 과 같은 內容의 銘文이 있는데 「嘉靖十四年乙未四月日立塔重修記化主義根」, 字徑 一·五~二cm, 嘉靖 一四年은 中宗 三〇年, A·D·一五三五年, 高四·一cm, 幅一〇·二cm.

(5) 寶林寺 西塔內 青銅盒。銘文이 蓋에는 없고, 器表面 中下部에 一行으로 둘러져 있으며(字徑 一·三二cm), 그 全文은 『嘉靖十四年乙未五月日立塔施主俞□□□□化主義根』이라 있다。以上 두 塔의 盒은 朝鮮中宗代의 重修時(A·D·一五三五)에 納入한 것이다(註三)。

(6) 法住寺 五層木塔(捌相殿)。壬辰倭亂後의 再建이기는 하지만 一九六八年 九月 解體修理時 舊址 위에 古來의 方式에 따라 心礎石 上面中央에 方形 二段의 舍利孔이 마련되고, 그 內部에 舍利藏置가 있음이 밝혀졌다。舍利孔에는 四壁과 天蓋를 이루는 方形 銅板으로 構成되는 方形函의 表裏에 모두 銘文이 記刻되였다。藏置品은 새로 代替되였으나, 方孔을 지니는 心礎石은 古來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心礎石 方孔內, 四壁과 上面에서 發見된 銅板에 陰刻되어 있으며, 皇龍寺木塔 以來의 傳統이 이어지고 있었다。字徑 一·五cm, 乙巳年은 萬曆 三三年 朝鮮宣祖三八年, A·D·一六〇五年, 判讀된 銅板 字數는

南板 內面五〇(缺一) 西板 內面八七(缺一)  
外面六四(缺一) 外面四二(缺一)

東板 內面四四(缺一)



圖 1 北魏 石函蓋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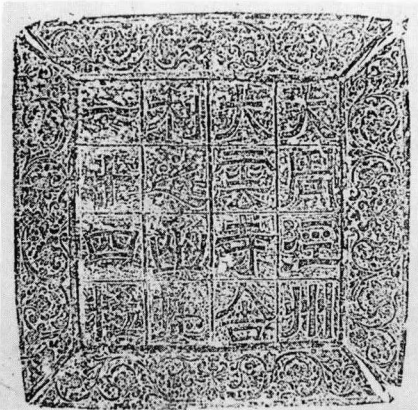


圖 2 甘肅省涇川縣出土 唐代 舍利石函蓋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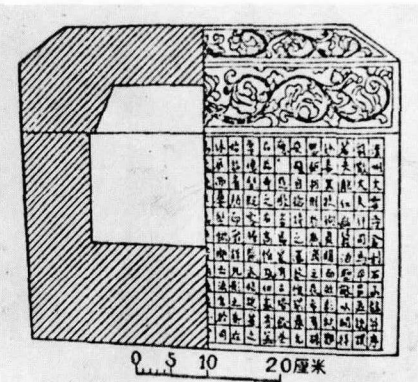


圖 3 甘肅省涇川出土 唐代 舍利石函表面刻銘

外面七三  
北板 外面五三(缺一) 天蓋板 內面三九

### 三、中國에서의 塔址發掘

中國의 塔內 舍利藏置에 對하여서는 隋文帝가 仁壽舍利塔을 全國州에 一齊히 三回에 걸쳐 建立한 記錄이 豊富하여 이 方面 研究에 들도 없는 重要한 資料가 되고 있거니와, 最近 中國大陸에서 塔址의 發掘이 活潑히 이루어져 이 調査報告가 發表되고 있다。其中 記銘이 있는 例를 몇 들이 본다。

北魏·河北定縣出土 北魏石函에 依하여 石函蓋에(圖一) 記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唐·甘肅省涇川縣出土 唐代舍利石函 剖面 및 蓋에 가득히 銘文이 새겨져 있다。(圖二·三)

宋 (1) 河北定縣發現 兩座宋代塔基



圖4 定縣 靜志寺舍利塔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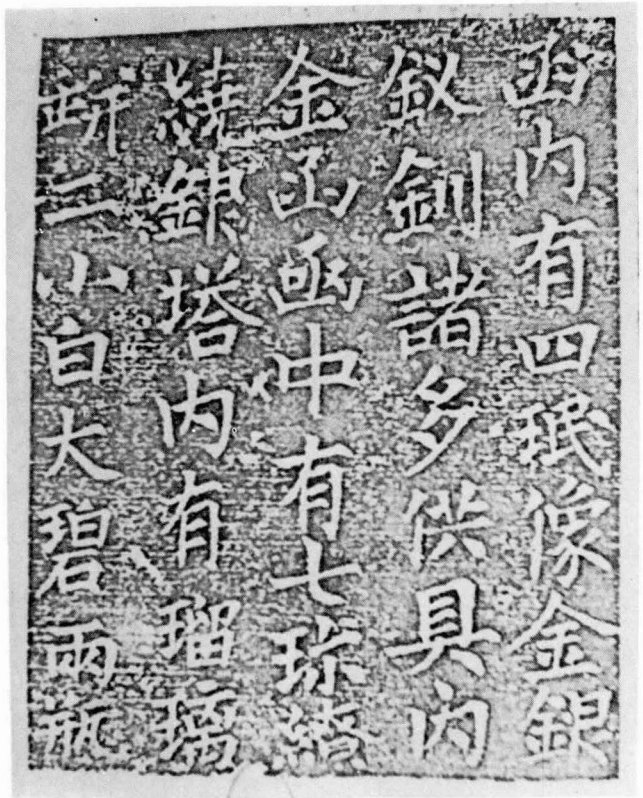


圖5 河北省 定縣出土 宋代塔墓銘文

① 淨衆院舍利塔址(河北省定縣)、塋室에서北宋至道元年(九九五)銘의大石函이安置되었다.

② 定縣의 靜志寺舍利塔址、舍利塔銘에依하여이塔이北宋太平興國二年(九九七)의建立임이明白해지고,이塋室에는唐大中二年(八五八)에重葬한石函、隋大業二年(六〇六)에(圖四·五)北魏興安二年(四五三)在銘石函을重葬한石函等이發見되었다. 이外的塔으로

(2) 甘露寺鐵塔基內 遺物

A、李德裕長干寺阿育塔舍利記石刻(正方形)青石

B、潤州甘露寺舍利塔記(長方形)青石

C、禪僉寺舍利石函蓋銘(長方形)唐大和三年(A·D·八二九)

D、李德裕禪僉寺舍利題記(正方形)唐大和三年(A·D·八二九) 以上の數例로서舍利具에의記塔方式의變遷이나、塔內에藏置한遺物等이 많이 밝혀졌다고 본다.

即、北魏에서는舍利石函의表面에銘文이記刻되고、六朝時代에는正方形的塔誌石이 쓰여지는데、唐代에 이르러舍利石函外面에銘文이 새겨지면서宋代로 이어진다. 한편隋의仁壽舍利塔에서는地上에石碑가 세워진다. 이는僧侶가死亡하면塋塔 옆에石碑를 세워、 그의德行을世上에傳하는 것과 같이、舍利塔이建立되었을 때의 여러奇瑞를參詣人들에게 알리는 데에 그目的이 있었다고 한다.(註四) 그리고六朝時代以來舍利容器的納置에 있어서最外部를거의石函으로하는데、 이것은貴한金銀의容器가直接흙에 닿아損傷되는 것으로부터保護

하려는 意圖도 있겠지만, 陵墓에 있어서의 玄室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고 생각되며, 다음 唐宋代의 博築 玄室로 發展하는 바탕이 되어졌다  
고 여겨진다.

#### 四、結 言

우리 나라에서 舍利容器에의 記銘이 古新羅에서는 石函이 쓰여지나  
(芬皇寺塔) 無銘이다. 統一新羅가 되면, 石函 대신 金屬製 方函(皇福寺石  
塔)이 出現하여, 蓋裏에 銘文이 새겨진다. 예로는 金銅圓筒에 記銘되거나  
金銅方函裏에 記刻아닌 墨書도 나타나는데, 新羅도 末期에 이르러서  
는, 蠟石製 石盒이 出現하고, 盒外面에 記刻되는 것(敏哀大王塔)과 無  
(奉化西洞里東塔)이 있다. 松林寺塔塔에서 方形石函이 아닌 龜形石函이  
나타나나 後世 것으로 보이며 無銘이다. 高麗에 들어서면 石製圓壺의  
例가 있기는 하나, 거의 石製函이 자취를 감추게 되며, 金屬製 容器로  
代替되는 것 같다. 舍利匣(普願寺址塔), 金銅八角形舍利容器(在日 鄭詔文  
氏藏), 銅盒(普濟尊者兩塔), 銀製鍍金舍利塔(金剛山月出峰), 銀製舍利  
塔(美國 Boston 博物館) 등에 記刻된다. 近世朝鮮에 이르르면 石製容器가  
역시 보이지 않고 거의 金屬製 容器이며, 銀製圓筒, 青銅舍利盒, 磁器舍  
利圓壺 등에 記銘된다. 그리고 法住寺 木塔(捌相殿)에서는 皇龍寺 木塔  
以來의 金銅函이 使用되어, 그 오랜 傳統이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中國에서는 舍利容器의 外函으로 石製函이 使用되나  
우리 나라에서는 新羅에서만 石函이 쓰이고, 그것도 直接 石函에 記刻  
되는 예는 없으며, 거의 金屬容器가 쓰여진다. 中國에서는 僧侶의 墳塔  
옆에 세우는 石碑를 舍利塔에도 세우는 일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僧侶의 浮屠에만 세워진다. 다음에 中國人들은 塔에의 舍利藏置를 佛骨  
의 埋葬으로 보기 때문에 棺形 槨形 容器가 發生하나 韓半島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이웃 日本에서도 그런 예는 없다고 한다(오직 三嶋廢寺에서  
만 있을뿐). 舍利外函으로 石函을 쓰는 것도 中國人들이 石函을 塔基의

玄室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니, 이는 모두 舍利에의 觀念이 다른 까  
닭이라고 하겠다.

#### 註

- ① 黃壽永·新羅皇龍寺九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東洋學 第三輯)
- 〃 〃 金石遺文
- ② 〃 〃 韓國美術全集第六卷 Z。四八 松林寺五層塔塔
- 慶北大博物館·慶尙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一) 漆谷地區
- ③ 寶林寺雙塔은 從來(日帝時)에 南北塔으로 불려져 왔으나,  
杉山信三·朝鮮의 石塔 P 九〇(五) 寶林寺南北三層石塔  
天沼俊一·朝鮮의 佛塔(五) 寶林寺三重石塔二基 南塔은:  
藤田亮策·青丘學叢 第十九號 南塔塔誌:  
高裕燮·韓國塔婆의 研究 各論草稿 Z。五四 長興寶林寺東西三層塔으로  
題하고, 前記 藤田氏의 報告도 紹介하고 있다.  
鄭永鎬氏는 本誌 第一二三, 一二四號에 東西塔으로 發表하였다. 其後筆  
者는 寶林寺에 間疑하였던 바, 圖面까지 그려서 『南北塔』으로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回信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東西塔은 과연 從  
前에 부르던 南, 北塔중 어느 것에 該當할 것인지 자가지 알 수 없으며 兩  
塔의 呼稱問題는 좀더 研究해 보아야 좋을 것 같다.
- ④ 小杉一雄·中國佛教美術史의 研究 P, 五六, 地中の舍利塔銘  
(韓國美術史學會 評議員)